



전북생진원이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대비해 온라인 시장이 낯선 약 50여개의 온라인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식품기업 온라인 역량 강화

생진원, e-발효식품엑스포 대비 온라인 초보기업 대상 교육 실시

전북도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이 주관하는 국제식품박람회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로 진행된다.

현재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모집을 마감한 상태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도내 식품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과 지원을 통해 식품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다양한 채널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아직 온라인 시장이 낯선 약 50여개의 온라인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온라인 첫걸음 비즈니스 레밸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역량교육은 온라인에 진출하고 싶지만 인프라, 정보 및 인력 부족으로 온라인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는 온라인 초보기업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식품 소비형태 변화 △소비트렌드 반영 홍보 및 마케팅 기법 △온라인몰 입점 방법 및 필수 지식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식품 기업인으로서 필요한 내용이다.

교육에 참가한 천삼다초 차상환 대표는 "영세기업들이 온라인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진흥원에서 온라인 진입에 필요한 교육을 해줘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식품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온라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 이후에도 온라인 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홈페이지 구축 지원, 오프라인 공동 프로모션 행사 등 필요한 지원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온라인 첫걸음 비즈니스 레밸업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온라인 초보 기업들이 온라인 진입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8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8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e-엑스포로 개최된다. 오는 8월 6일부터는 우체국 소포물에서 다양한 전북도 우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8월 도내 중기 경기전망지수 80.8p'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8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대비 1.7p 하락한 80.8로 2개월 연속 소폭 하향곡선을

보이며, '한국판 뉴딜' 등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회복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8월 경기전망은 81.2로 전월대비 3.1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0.4로 전월과 동일 수치를 보였다. 건설

업의 경우 25.0p 하락한 66.7로 급락세를 보였으나, 서비스업은 82.0으로 전월보다 3.0p 상승했다.

내수판매(80.6→79.6)와 영업이익(80.2→76.4)전망은 각각 1.0p와 3.8p 하락했고, 수출전망은(81.3→87.2) 전월 대비 5.9p 큰폭으로 상승했다. 역계열인 고용수준(100.0→100.0) 전망은 전월과 동일하게 전망됐다. /김윤상 기자

# 6월 국내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발표

지난 6월 생산·소비·투자 3개 지표가 모두 전월 대비 플러스(+)를 나타냈다. 지난 2019년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현재 경기 국면과 향후 상황을 예고하는 지표도 개선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6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106.9로 전월 대비 4.2%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7% 늘었다. 전산업 생산 지수는 2019년 9월(-0.2%)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마이너스(-)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국장)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가 큰 영향을 받았다"면서 "제조업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6월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전산업 생산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 국장의 말대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큰 폭(7.2%)으로 증가했다. 2009년 2월(7.3%) 이후 11년4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수출 지표가 개선됐고,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감소폭이 컸던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

년 동월과 비교하면 광공업 생산은 0.5%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7.4% 늘었고, 특히 자동차가 큰 폭(22.9%)으로 증가했다. 가솔 및 신발은 4.6%, 반도체는 3.8% 늘었다.

제조업 출하 역시 전월 대비 8.4% 증가했다. 수출 출하가 1987년 9월(19.2%) 이후 최대치인 9.8%만큼 늘었다. 32년9개월 만이다. 통신·방송 장비(27.9%), 자동차(24.5%), 화학제품(5.5%)의 증가 덕분이다. 특히 국내 완성차 내수 출하 지수는 129.9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4% 줄었다. 화학제품(-5.9%), 1차 금속(-4.2%), 반도체(-3.7%)의 재고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 대비 7.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부동산(6.3%), 전문·과학·기술(5.5%), 교육(5.4%), 운수·창고(2.8%) 등이 눈에 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 감소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도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2.2% 늘었다. 도소매업 재고는 2.1% 줄었다.

소비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8.2로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 의복 등 내구재(4.7%),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4.1%), 화장품·의약품 등 비내구재(0.4%) 덕분이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6.3% 늘었다. 내구재가 29.2% 대폭 증가해서다.

안 국장은 "제조업 생산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0.4%, 서비스업도 -0.1%라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소비는 그렇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등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생산 4.2% · 소비 2.2% · 투자 5.4% ↑

현재 · 미래 '경기 지표' 도 일제히 나아져

정부 '3분기 반등 가능성... 수단 총동원'

설비 투자의 경우 전월 대비 5.4% 증가했다. 자동차 등 운송 장비(7.2%), 정밀 기기 등 기계류(4.7%)의 증가 폭이 컸다. 전년 동월 대비 설비 투자는 13.9% 늘었다.

기계류 내수 출하는 기계 장비 등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했다. 국내 기계 수출(선박 제외)은 전년 동월 대비 19.0% 늘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각각 0.4% 증가했다. 토목(-0.3%)은 감소했지만, 건축(0.7%) 공사 실적이 개선된 덕분이다. 전년 동월 대비 건설기성(불변)은 2.7% 감소했다. 건설수주(경

# 전은, 올해 상반기 실적 '양호' · 건전성지표 개선

당기순이익 584억원 실현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이 상반기 양호한 실적과 건전성지표들을 개선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584억원을 실현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총당금 추가 적립 요인들을 감안하면 선방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를 맞아 순이자마진(MIN)이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건전성지표들을 개선했다.

전북은행은 0.70%의 낮은 연체 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65%로 지난 1분기 대비 0.07%p 개선해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순이자마진은 2.47%로 전년대비 0.05%p 올라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기록했으며,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으로 자본비율도 개선돼 2분기 BIS자기자본비율의 경우 15.05%(잠정)로 1분기 대비 1.06% 상승하며 금융당국 권고치인 14%를 상회해 적정 자본적정성을 유지했다. 이는 지속적인 자산구조 개선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건전성 중심 성장추진으로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전북은행은 경영 안정화와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역경제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생긴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원했으며, 금리혜택 및 별도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장과 분할 상환금에 유예 하는 등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긴급자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영업점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도 운영했으며,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전주시, 군산시의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시민들의 편리한 발급을 위해 주중을 비롯해 주말까지 분점에 임시 배부처를 운영하면서 선별카드 발급 업무를 도맡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으로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북은행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수신과 여신, 카드, 부가서비스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편의를 도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및 지역사회 실천에도 적극 앞장섰다. 총 2억1700여만원의 특별성금 조성하고 도내 지자체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특별성금도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농협, 상임이사 선출

오태식 · 오세일 등 2명  
사외이사에 최정자 · 이남철



전주농협은 이날 총회에서 상임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을 선출했다. 신용사업과 보험사업 등을 담당하는 신용상임이사에는 전주농협에서 현재 신용상임이사로 재임 중인 오태식씨가 재선출 되었다. 임기는 오는 8월 20일부터 2년간 유지된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로컬푸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농협 경영진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등 전주농협과 생산자협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김윤상 기자

## 세계은행, 농업기술 홍보

농진청, '한국농업 지식 교류 가이드북' 발간 주도

세계은행(World Bank)이 190여 개 수원국 및 이해 관계자 홍보자료로 활용할 '한국농업 지식교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세계은행 산하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은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 노하우를 저개발 국가에 전수하는 '지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50여 회가 넘는 '지식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세계은행 직원, 수원국 공무원 및 전문가가 한국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교류했다.

세계은행은 이들의 주요 관련 기관 방문을 주관하고, 분야별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 교류 책자를 발간해 왔다. 최근 한국농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지식교류 가이드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농업을 소개하는 '한국 농업 가이드북' 발간을 추진하게 됐다.

이 책자에는 농촌진흥청의 식용곤충을 이용한 농식품 성공 사례 및 농경지 토양관리 혁신기술로 농업토양환경정보시스템 '휴토타'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체결한 세계은행과 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약 후속 사업을 위해 세계은행에서 협력해 제안한 '아프리카 기아해결을 위한 식용곤충 활용 연구'와 '개도국 농경지 토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김윤상 기자

## 전북은행,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늘부터 전북은행 영업점 어디에서나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출시로 잔액 부족 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재충전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연령별로 어린이,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며 대상자는 만 12세부터 17세까지로 이용 한도는 월 5만 원이다. 카드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며, 전체 카드업권 내 합산 1인 1매로 발급이 제한된다. 청소년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1st TRIPLE 체크카드 캐릭터인 먹방이, 위버어베어스 중 선택하여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편의점, 배달음식, 카페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가맹점에서 이용 시 최대 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여 월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북은행은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고객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모바일 쿠폰(바나나우유)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상는 전년 동월 대비 60.2% 늘었다. 현재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96.7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향후 경기 상황을 예고하는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99.4로 전월 대비 0.4p 올랐다.

경기 지표와 관련해 안 국장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한국 경제의 순환 변동치가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 조짐을 보였다. 동행·선행 지수 모두 개선세를 보이면서 업턴(Uptun·호전)할 것으로 봤다"면서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안 국장은 이어 "올해 3~5월 동행 지수는 3.3p 하락해(코로나19의 경제 여파는) 1997년 외환위기 때 3개월(5.7p)이나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3개월(2.7p)의 중간 수준"이라면서 "외환위기 때는 동행 지수가 10개월여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

번에는 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충격이 즉각적이었지만, 회복도 빨리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설'과 관련해 안 국장은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가 상승한 것은 코로나19(재유행)을 예상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 지표의 구성 요소는 코스피(종합 주가지수), 건설 수주액 등인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앞으로 다시 유행하더라도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에 명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 산업 활동 동향에 "생산·지출(소비) 측면의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경기 지수가 상승하는 등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국판 뉴딜, 임시 공휴일 등 정책 효과는 이에 더 기여할 것"이라며 "확실한 경기 반등을 위해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평가를 내렸다. /뉴스1